



정신건강센터 보조금 횡령 법정다툼 예고

횡령 총액 11억 중 6억 반환... 용의자는 작년 사망 위탁기관 제주대병원 자체 예산 4억 투입 임금 지급 병원 측 설립 주체인 도에 "손실 보전액 달라" 요구

제주도가 설립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불거진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횡령 규모를 총 11억원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횡령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매꾼 병원 측은 제주도가 해당 비용에 대한 지급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의혹을 받은 센터 직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이건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금 지급 등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센터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 11억여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단 A씨가 이 기간 빼돌린 11억여원 중 6억여원을 다시 센터 계좌로 입금하면서 실제 사라진 돈은 5억여원이다.

센터는 A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뒤 보조금 계좌를 점검하던 중 수액원이 사라진

사실을 처음 알아챘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와 제주대병원은 그달 센터를 상대로 합동 감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센터 계좌로 보조금 일부를 다시 돌려 놓은 것과 상관 없이 개인 통장에 이체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횡령 규모를 11억원으로 산정했다"면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횡령한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5억원이 사라지면서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자 병원 측은 자체 예산 4억원으로 말린 임금을 지급했다. 또 병원 측은 제주도에 손실액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 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 "법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예방과 재난대응 심리지원 등 정신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5년 제주도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설립했다. 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설립 첫해부터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정부는 매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센터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24억원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센터 직원 1명이 회계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비리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보고, 회계 업무에 2명 이상 투입하고 보조금 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마늘 수확철 농산물 절도 요주의

제주 최근 3년 103건 발생... 지역별 방법대 운영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총 103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30건, 지난해 23건 등이었다.

절도 유형도 밭이나 과수원에서 농산물을 훔쳐가는 '들건이'와 저장고나 창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가져가는 '곳간털이'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에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서귀포시 하에공에서 건조 중인 마늘 20kg을 훔쳐다가 구속됐으며 같은 달 대정읍에서도 건조 중인 마늘 20kg을 절도한 6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농산물 절도는 특히 수확기에 빈발해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방법대 구성 등 땀으로 일군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시 한경면은 지난 16일 한경파출소와 마늘수확기를 맞아 민경합동 특별방범활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방범활동에 돌입했다.

또 지난해 서부경찰서와 서부지역 5개 농협 등이 농산물 도난 범죄 예방을 위해 협력키로 하면서 운영 중인 '위치추적기'도 현재까지 312대가 보급돼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과수원에서 농자재 파이프 10여 개를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농가에서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를 농자재에 부착해 뒤 경찰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도난품의 위치를 확인, 범인을 검거했다.

김도영기자

"달랑게 서식지 훼손말라" 환경연합, 제주시에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시는 해양보호생물 '달랑게'의 집단 서식지를 훼손하는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중단하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예방하는 목적을 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달랑게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으며 갯벌의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양보호생물 현황조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공사 계획의 재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풍랑주의보 발효된 날... 서퍼의 도전? 18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귀포시 안덕면 사거리 앞바다에서 한 서퍼가 윈드시핑을 즐기고 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상레저활동 신고 후 서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강희만기자

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일제 점검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 등 국유림은 1만7518ha(제주시 9002·서귀포시 8516)이며, 이 중 145건·1031.2ha(제주시 66건·755.9ha, 서귀포시 79건·275.3ha)가 올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 실태, 대부(사용)료 납부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 등이며 불법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 등 적절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철저한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 및 사용 허가 제도 강화로 관리부실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국유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고대모기자

약물 과다투여 영아사망 은폐사건 2심으로...

작년 3월 간호사 3명 관여 1심 "징역 1년~1년 6개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 중인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간호사 3명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 수간호사 양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 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12개월 영

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강씨는 약물 투약 직후 영아의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았지만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투약 사고 후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검찰은 간호사들의 은폐 행위 때문에 담당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검색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니몬, 국내산 행자묘목 판매(신규 202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주문생산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품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9번길1(수산리735)